

박 목사님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그 동안 잘지내셨는지요?

그 동안 저희농아교회와 저희 가족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와 후원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는 평안하고 또한 저희가족도 평안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수도)에 지내면서 체류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부흥회를 열어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콜롬비아 농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게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농아인들은 대부분 청년이었고 성경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흥회장소는 건물 4층에서 했었는데 농아인 청년의 할머니 소유주의  
건물이었고 할머니 또한 크리스천으로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농아신학교에 대해 현지 농아인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고 기대가  
컸습니다.

또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꺼이 교실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시기로 한 건물 주인도 만나 이야기를 잘 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LA에서 살고 계신 한 유대계 미국인이 생들이 쓸 수 있는 책상들을  
구입해주셨습니다. 다른 학용품들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콜롬비아 농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역자 양성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느끼고 신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농아들에게 신학교를 홍보하고 입학원서를 준비하고 기숙사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타에 있는 정부기관에 신학교 설립이 허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신학교 설립에 대해 자세히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7월말~8월초 부터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2-3년간 신학을 가르치면서 교역자들을 양성해서 콜롬비아 지역에 흩어져 각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워 콜롬비아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고민도 되고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신학교 설립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목사 드림